“끊임없는 변화·혁신 통해 지역 대표하는 대학 만들 것”

송원대학교

고경주 학교법인 송원대 이사장

철도대학 글로벌 마인드 접목
간호학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자체-대학-기관 협력 강화
최근 3년 취업률 72.8% 뿌듯

“끊임 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송원대학교의 성장동력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최근 취임한 고경주 학교법인 송원대학교·송원학원 제2대 이사장은 10일 광주시 남구 송원대 이사장실에서 광주일보 기자를 만나 “지역 대학의 여건이 어렵지만 굳건한 토대를 갖춰 송원대를 마지막까지 지역을 지키는 대학 , 인재를 지키는 대학으로 이끌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이사장은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틀을 잡은 철도·간호학과 등 특성화 부분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면서 “폭넓은 지성과 실용 능력을 갖춘 창의적 혁신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고 이사장과 일문일답.

-선대에 이어 이사장을 맡은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

▲애국인, 기술인, 도덕인, 실천인 양성이라는 건학이념으로 학교를 이끌어 오신 선대 이사장(고 제철 이사장)님의 모습을 늘 되새기고 있다. 지방대 현실이 어렵지만 선대 이사장님의 건학이념을 계승, 발전시키려 한다.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 새 시대에 맞춰 대학의 새 길을 모색할 계획이다.

-임기 중 추진할 역점 과제는?

▲학문과 연구 전문가들인 송원대 구성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권위적인 리더십을 내려놓고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싶다. 취임하면서 3대 실천 과제를 정했다. 첫째, 송원대는 명실상부하게 최고 수준의 법인전입금·법정부담금 비율을 자랑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법인의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대학을 만들 것이다. 송원대가 운영하고 있는 호남유일의 철도특성화 대학을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산업을 능동적이고 유기적으로 개척할 생각이다. 셋째, 구성원이 행복한 대학이다. 이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학생식당 활성화 등 복지확충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대학 위기를 돌파할 송원대만의 해법이 있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발굴·육성한 특성화 부문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대표적으로 철도대학에 글로벌 마인드를 접목할 계획이다. 학생들을 일본 등 해외 선진지에 보내 국제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철도대학은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차량 운전교육 훈련기관’ 인가를 받은 데 이어 2022년 ‘철도 관제사 교육훈련기관’까지 인가받았다. 송원대는 명실상부하게 전국 사립대 최초로 철도기관사와 철도관제사를 동시에 배출하는 대학이다.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주요 철도운영기관에 학생 300여명이 취업했다. 이를 인정받아 2018년 대한민국 브랜드만족도 교육부분 1위(2018), 2022년과 2023년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 대학(철도특성화) 부분에서 2년 연속 선정됐다. 지역명문학과인 간호학과는 2015년, 2020년 간호교육 인증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2회 연속 획득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아교육과는 2018년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융합학과(성인 학습자 전담과정)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평가를 거쳐 2023년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 3년간 140억원의 국비를 수주했다. 3주기 대학기관평가 인증에서도 5년 인증을 받았다. 2024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교에 선정돼 2025년 RISE 사업 거버넌스에도 참여하게 됐다.

고경주 송원대 이사장이 학교비전을 밝히고 있다.

-송원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강한 자조의지로 인격과 능력을 스스로 향상시켜 나가는 도덕인, 배움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를 개선해 나가는 실천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인, 투철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기본 교육 방향이다.

사회의 변화에 걸맞은 지성인, 실용 인재상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 폭넓은 지성을 갖추고 실용 능력에 기반한 창의적 혁신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16개 학과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 전공·직무별 역량을 고루 갖춘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이런 노력 때문에 최근 3년간 72.8%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과 방안은?

▲우선 세 가지 방안으로 지자체-대학-혁신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지역정주형 인재를 양성하는 웰니스 특성화 분야의 학과(간호학과, 유아교육과등)를 특화할 계획이다. 둘째, 철도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핵심산업인 미래형 모빌리티의 한 축인 철도 분야를 지역발전과 연계할 생각이다. 현재 송원대 철도대학 교수진이 기술과 정책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최고 철도운영기관과 연구기관 출신으로 빼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싱크탱크다. 셋째, 평생학습자 및 재직자들의 지속적인 지역정주를 위한 사회복지기반의 사회서비스융합학과는 지역정주형 교육의 우수 모델이 될 것이다.

/글=윤영기 기자 penfoot@
/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이금희 북토크·최태성 인문학 강연

전남도교육청, 22~23일 ‘독서문화한마당’

22개 시·군 도서관 주도

동화 콘서트부터 아나운서 이금희와 함께하는 북토크, ‘큰별쌤’ 최태성의 인문학 강연까지….

가을을 맞아 책을 매개로 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전남 지역 도서관 등 곳곳에서 펼쳐진다.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산하 22개 도서관이 주관하는 ‘제8회 전남독서문화한마당’이 오는 22~23일 지역 도서관, 평생교육관, 학생교육문화회관 등에서 동시에 열린다.

지난해까지 목포·나주·여수 등 권역별 도서관 주관으로 열렸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22개 시·군 도서관 주도로 일제히 진행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온:도서관 ON 책’으로 정해졌다. 전남교육청 산하 모든 도서관들이 동시에 책에 ‘접속’해 책을 읽고 즐기는 독서문화한마당을 펼친다는 의미다.

22개 도서관이 특색있게 선정한 30여 명의 작가 초청 인문학 강연회, 어린이 뮤지컬·인형극·야외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 다문화·생태환경 주제의 체험 및 전시가 다채롭게 마련됐다.

목포도서관은 ‘지구 끝의 온실’ 김초엽 작가를 초청해 ‘SF 창작과 읽기의 즐거움’을 주제로 강연하고, 장흥도서관은 이금희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북토크를 준비했다.

나주도서관은 한국사 일타강사인 최태성 별별한국사연구소장의 인문학 강연을 열고,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안데르센 동화콘서트, 그림책 동요·마술쇼 등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강연 및 책놀이, 어린이 뮤지컬, 샌드아트 ‘모래로 읽는 동화’, 그림책 원화 전시, 독서권장 마술쇼 등이 진행된다.

지역별 자세한 행사 내용은 전남독서문화한마당 누리집(jnelib.jne.go.kr/bookfestiv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연 및 공연 프로그램은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박진수 전남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이번 독서문화한마당은 전남 곳곳에서 일제히 열리는 방식으로 학생·학부모·지역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라며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됐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A등급…사업비 108억 확보

교육·연구·산학협력 등 역량 강화

조선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일반재정지원)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등급’(교육혁신전략 A, 자체 성과관리 A) 을 받았다. 이로써 총 사업비 108억22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해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등 총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전국 117개 대학(일반재정지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2주기 사업기간은 총 3년(2022~2024)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기본 지원 사업비(포뮬러 사업비)외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차평가를 통해 1차년도 사업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대학의 대내·외 환경변화와 여건을 분석, 도출한 교육혁신전략을 80점 배점으로 평가해 대학별 추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정했다.

조선대는 신입생 코어 부스터의 웰컴캠퍼스, 베이스강화 패키지, 신입생 마인드 리프레시, 지역상생 공유협력대학 등 세부 프로그램 추진성과 및 계획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미래혁신형 융복합 교육의 구체적인 운영, 대학 자체 성과관리 모델(T-Play) 구축, 세부과제별 문제점 및 효과 진단을 실시해 과제 이행 수준별 개선방안을 도출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종합적으로 교육혁신 전략 및 계획을 체계적으로 도출, 경계 없는 교육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과 학생 생애주기별 교육혁신 로드맵을 적절하게 제시했다는 점이 A등급 달성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학생해양수련원 하반기 활동 본격 운영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2023년도 하반기 학생수련활동 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의 학생수련활동 과정은 해양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학생 수련 프로그램으로, 광주 중·고·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생수련활동 과정은 바다보팅, 인명구조를 위한 드로우백 교육 등 수련원의 특색있는 해양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반기 과정은 생존수영 교육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위기상황 대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일련의 교육활동은 심폐소생술 및 안전교육 등을 통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시된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 김필모 원장은 “더 많은 학생들이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